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Open Works in Fashion Design

Choi, Yoon-Mi* · Kim, Yoon-He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Hannam University

The past, or Classic, art was in essence unambiguous. In general, viewers or the audience could interpret the content represented by the painting or sculpture, or the meaning of the musical melody only in one direction. However, the typical modern art form shows a great change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rt and the public, as the public are increasingly demanded to actively cooperate and to personally participate in the realization process of art work. A modern artist leaves the possibility of active intervention of the reader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an art work. Thus, such work given to the reader may be an 'incomplete art work'. Umberto Eco interprets this kind of art work as open work, and considers its characteristics as openness.

In modern fashion design, a piece of work is not a closed object that implies the optimal meaning of the designer, but a multilateral open space diverse interpretations are bumped against and mixed with one another according to different positions. Thus, in order to have the possibility of diverse interpretation stay open, fashion designers have to practice more actively so that 'the controlled disorder' is possibl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orm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open works of modern fash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includes foreign and domestic fashion works since the 1990s.

The open works of fashion design refer to the works in progress that are designed beforehand to become different forms by choices in the process of wearing. Various techniques are used

for open works, including the use of closing methods (buttons, zipper, etc.), the use of many holes that are necessary because of the nature of human body, the use of elastic material and the details such as strings and laces. Open work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ne allows change in the wearing position (front or rear, up or down, left or right, outside or inside), another in the wearing form (silhouette, length, volume, and proportion), and another in the wearing dimension (two-dimensional or three-dimensional).

Our analysis also discovers characteristics of open works of fashion design. First, they are open in form and work in progress which are only completed by the choice of the wearer. Second, the wearing process becomes an important element of design as such process is given as multiple choices. Third, the wearer experiences the controlled freedom by selecting one of several forms of single piece of clothing. Fourth, instead of achieving variation by selecting other pieces of clothing, one can make multiple choices with one piece of clothing. Thus, the wearer can more actively experience the variation and multiplicity of interpretation and the openness of the type. The consumer can obtain another important method to express individual tastes and personalities.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열린 작품의 특성 분석

최윤미* · 김윤희

충남대학교* · 한남대학교

과거의 예술 즉 고전적 예술은 본질적으로 애매모호하지 않았다. 감상자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작가는 감상자에게 특정한 반응을 지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자나 관람객 또는 청중들은 텍스트의 내용, 회화나 조각이 대변하는 내용, 음악의 곡조의 의미를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전형적인 예술 형태는 예술과 대중간의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여주는 데, 대중은 과거의 전통적인 예술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작품의 실현과정에 협력하고 개인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예코는 이를 현대 예술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즉,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데 독자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며, 따라서 독자에게 주어지는 예술은 ‘미완의 예술품’일 수 있고, 이러한 예술 작품을 열린 작품, 그 특징을 개방성이라 하였다.

지금의 패션 디자인 또한 디자이너가 생각하고 있는 최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닫힌 대상이 아니라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이 부딪히며 섞이는 다면성의 열린 공간이다. 작품의 고유성과 맥락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해석자(수용자)의 위치에 따라 그 때 그 때 생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하여 패션 디자이너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된 무질서’가 가능하도록 실천하여야 한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열린 작품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디자인을 위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열린 작품의 형태적 특성 및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및 시기는 국내외 디자이너의 발표 작품으로 1990년에서 현재까지로 하였다.

패션 디자인의 열린 작품이란 의복을 착용하

는 과정에서 선택에 따라 다른 형태가 되도록 미리 고안된 진행 중인 작품을 일컫는다. 열린 작품을 대상으로 사용 기법을 분석한 결과 여밈 수단(단추, 지퍼 등)의 사용, 머리와 사지로 구성된 인체의 특성상 필요한 여러 개의 구멍의 사용, 형태 변형이 용이한 신축성 소재의 사용, 끈 등의 디테일의 이용 등이 있다. 열린 작품의 유형에는 입은 위치의 변화(앞과 뒤, 위와 아래, 좌측과 우측, 겹과 안 등), 입은 형태의 변화(실루엣, 길이, 볼륨, 비례), 입은 차원의 변화(평면형과 입체형)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 패션 디자인의 열린 작품은 첫째, 완성은 입으면서 착용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행 중인 작품으로 형식 자체가 열려있다. 둘째, 디자인에서 과정이 선택의 요소로 사용되어 옷 입는 과정이 주요 디자인 요소로 드러난다. 셋째, 한 옷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선택하는 통제된 자유를 경험하며 착용자는 완성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다른 옷과의 선택에 의한 변화가 아닌 한 의복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착용자는 해석의 다양성 및 복수성, 형식의 개방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험하며 이는 개인의 취향 및 개성 표현의 또 다른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